

구약개관 9과 - 분열왕국시대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종현 목사(예배기획)  
enchristo9@naver.com  
010.8816.9858

제9과 분열왕국시대(1) '경고하시는 하나님'

• 열왕기상하 전체보기

크게 보기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분열왕국 전반기		분열왕국 후반기						
작게 보기	솔로몬 의 등극	솔로몬 의 치세	여로 보암 왕조와 남유다 아사왕 의 종교 개혁	바아사 왕조	오므 리 왕조 와 엘리 야 엘리 사	예후 왕조와 남유다 요아스 의 종교 개혁	북이스 라엘의 마지막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노력	히스 기야의 반 앗수르 정책	므낏세 아몬의 친 앗수르 정책	요시아 야호 아하스 의 반애굽 정책	여호 야김 여호 야긴 시드 기야의 친애굽 정책
	1-2	3-11	12:1 -15:3 2	15:33 -16:2 0	16:2 1 -8:2 9	9:1 -15:1 2	15:13 -17:4 1	18-20	21	22:1 -23:3 5	23:36 -25:30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핵심 주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신 여호와										
교재 구분	제9과 분열왕국시대 - 경고하시는 하나님										
장소	사마리아 :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 남유다의 수도			
기간	약 384년 (B.C. 970 - 586년경)										

•분열왕국시대에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 ① 분열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1. 왕국 분열의 이유(왕상10-14장)

교재 p.140

- 솔로몬의 불순종

(왕상 11:3, 개정)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상 11:9, 개정)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왕상 11:10, 개정)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상 11:11, 개정)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왕상 11:12, 개정)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왕상 11:13, 개정)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 하나님의 징계와 왕국의 분열이 예언되었고, 솔로몬이 죽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왔다.

•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왕상 11:29, 개정)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왕상 11:30, 개정)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왕상 11:31, 개정)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왕상 11:32, 개정)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한 자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B.C. 930-910년). 에브라임 사람 느밧과 스루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왕상 11:26), 아비야와 나답을 낳았다(왕상 14:1; 15:25). 솔로몬 휘하에서 신임받은 유능한 신복(공사 감독관)이었다(왕상 11:28).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왕상 11:29-40), 이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그는 급히 애굽으로 망명하였다(왕상 11:40).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세겜을 수도로 함)에 또 다른 왕국을 세워 왕이 됨으로써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었다(왕상 12:1-20).

• 분열의 상세한 이유

### ① 정치적인 원인

사울과 다윗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남북 지파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다.

사울은 베냐민지파 출신이었고,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분열의 당사자였던 여로보암은 유다지파와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다.

(삼하 16:5, 개정)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삼하 16:7, 개정)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삼하 16:8, 개정)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 ② 경제적인 원인

솔로몬의 과도한 건축 사업 및 군사력 증강은 재정 지출을 확대시켰으며, 이를 위한 과다한 세금 징수와 강제 노동은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솔로몬의 천재적인 모든 재능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에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여로보암의 저항은 솔로몬의 실정(失政)을 반영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열왕기상 11:26~12:33).

(왕상 12:1, 개정)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다  
 (왕상 12:2, 개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왕상 12:3, 개정)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상 12:4, 개정)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상 12:13, 개정) 왕이 포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상 12:14, 개정)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상 12:15, 개정)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왕상 12:16, 개정)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 • 르호보암은 누구인가?

‘백성의 수가 많다’는 뜻.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왕(왕상 14:21, 31). 부왕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지나친 조세 부담과 부역에 반발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자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거느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왕상 12:1-15).

이에 18만의 군사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치려 하였으나 스마야 선지자의 만류로 북벌 계획을 중단하였다(왕상 12:22-24). 그후 3년 간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얼마 되지 않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5년째 되던 해 애굽 왕 시삭의 공격 앞에 왕궁까지 약탈당하는 위기를 겪는다(왕상 14:25-28). 그후 북이스라엘과도 잦은 분쟁을 치른다(대하 12:2-4, 15). 그는 41세에 즉위하여 17년을 통치하였고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통해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는데(대하 11:21), 그중 아들 아비얌에게 왕위를 승계해 주었다(왕상 14:31). 그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넣은 자’로 평가받고 있다(the Wisdom of Ben Sirach).

#### ③ 종교적인 원인

다윗은 왕이 되면서 실로(북쪽)에 있던 언약궐을 예루살렘(남쪽)으로 가지고 내려왔고, 솔로몬은 예루살렘(남쪽)에 성전을 건축했다. 때문에 지방성소들의 중요성이 약화되었고 이는 지방세력의 불만을 야기했다. 분열이 된 후 여로보암이 벰엘과 단에 성소를 건축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왕상 12:27, 개정)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하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왕상 12:28, 개정)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왕상 12:29, 개정) 하나는 벰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왕상 12:30, 개정)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왕상 12:31, 개정)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왕상 12:32, 개정)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벰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벰엘에서 세웠더라  
 (왕상 12:33, 개정)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벰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 여로보암의 죄 ★★★★★

특히, 그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벰엘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곳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다(왕상 12:25-33). 그리고 정한 절기를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고(7월 15일의 장막절을 8월 15일에 지키게 함),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고(왕상 12:31), 산당을 만들었다. 이 같은 죄로 인해, 그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왕상 13-14장). 하지만 그는 악행을 거듭하다가(왕상 13:33-34) 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를 맞게 된다(대하 13:20).

한편, 여로보암의 죄악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로 묘사되고 있다(왕상 15:26, 34; 16:19, 31; 22:52; 왕하 3:3; 10:29; 13:2, 11; 14:24; 15:9, 18, 24, 28).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결국 앗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큰 원인이 된다(왕하 17:16, 18).

④ 당시의 국제 정세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후원하여 솔로몬 왕국에 반체제 세력을 강화시킴.

(왕상 11:40, 개정)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남북 분단은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였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영토의 대부분을 주변 국가들에게 빼앗겼으며,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분열 왕국은 각자 자신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상호 비방을 일삼았으며, 이스라엘의 사상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 열왕기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

##### 1. 유다

- ① 이스라엘 왕 \_\_\_\_년에 유다 왕 \_\_\_\_가 통치를 시작하였다.
- ② 그의 나이, 통치 기간, 이름, 어머니 이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 ③ 왕의 통치가 “그 조상 다윗”과 비교하여 평가되고 있다.
- ④ “\_\_\_\_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⑤ 그가 열조와 함께 잤고, 그 대신 \_\_\_\_가 왕이 되었다는 마지막 진술.

##### 2. 이스라엘

- ① 유다 왕 \_\_\_\_년에 이스라엘 왕 \_\_\_\_가 통치를 시작하였다.
- ② 통치 기간과 수도의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 ③ 대개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 ④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 ⑤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⑥ 그가 열조와 함께 잤고, 그 대신 \_\_\_\_가 왕이 되었다는 진술

#### <열왕기를 읽을 때 체크리스트>

- 1) 열왕기는 남유다왕과 북이스라엘왕을 교차로 설명함. 각 왕이 등장할 때 상대 왕국에서는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지를 확인
- 2) 각 왕들의 독특한 에피소드
- 3) 평가 :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
- 4)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과의 관계 : 애굽, 아람, 앗수르, 바벨론 등
- 5)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인지?

## 2. 북왕국 이스라엘 교재 p.143

세겔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 영토가 넓고 비옥했으며 군사력에 있어 남유다를 훨씬 능가했다. 다만 옛 지파 동맹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동질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지리적 여건도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세의 영향을 받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왕조의 정당성과 이념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정세는 불안정하였다. 기원전 925년 솔로몬 사후 등극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721년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을 유지해 온 북이스라엘 왕조는 모두 19명(2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디브니<sup>1)</sup>까지 포함)의 왕을 낳았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치 기간이 짧았다. 19명의 왕 가운데 8명이나 암살되는 등 비교적 불안정한 파란의 역사를 겪었다. 히브리 성서는 대부분 이들 왕들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1)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인 후 왕위에 오르자(왕상 16:9-10, 21-22) 이스라엘 백성은 디브니와 오므리를 지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내란이 발생했고, 결국 왕권을 놓고 3년 간 치열한 쟁탈전을 펼친 끝에 디브니는 오므리 군대에 의해 살해당하였다(왕상 16:21-22).

	유다	연도	이스라엘	연도		
남북전쟁 시대	르호보암	931-913	여로보암	931-910		
	아비아	913-911	나답*	910-909		
	아사	911-870	바아사	909-886	▶ 1차 쿠데타	
			엘라*	886-885		
남북화해 시대	여호사밧	873-848	시므리 자살	885	▶ 2차 쿠데타	
			오므리 왕조	오므리	885-874	▶ 3차 쿠데타
				아합	874-853	
	여호람	853-841	오므리 왕조	아하시야	853-852	
	아하시야	841		여호람*	852-841	
	남북단절 시대	아달라	841-835	예후 왕조	예후	841-814
요아스		835-796				
아마사		796-767	여호아하스		814-798	
웃시아		791-739	요아스		798-782	
요담		750-731	여로보암 2세		793-753	
			스가랴*		753	
앗시리아 정복 시대	아하스	743-715	살룸*	752	▶ 5차 쿠데타	
			므나헴	752-742	▶ 6차 쿠데타	
			브가히야*	742-740		
			베가*	752-732	▶ 7차 쿠데타	
	히스기야	728-686	호세아	732-722	▶ 8차 쿠데타	
유다 왕국 시대	므낏세	697-642				
	아몬	642-640				
	요시아	640-609				
	여호아하스	609				
	여호야김	609-597				
	여호야긴	597				
	시드기야	597-586				

· \*는 암살을 의미함

· 숫자는 모두 '주전' 연도임

· 열왕들의 연대기는 레온 우드 박사의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했음.

· 이어지는 두 왕의 통치기에서 겹치는 시간은 섭정기를 의미함.

<출처 : 류모세, 역사드라마로 읽는 성경 2, 두란노서원, 2012.>

1) 여로보암의 죄(왕상12:25-14:20) 교재 p.143

- ①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할 것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제사법을 제정.
- ②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

2) 오므리 왕조와 아합의 통치 -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왕상16:29-22:40)

① 오므리 왕조의 왕들 : 오므리 - 아합 - 아하시야 - 여호람(요람)

② 오므리의 업적과 성경의 평가

정국이 불안정한 틈을 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오므리는 4년간에 걸친 내전에서 승기를 잡고,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군주 국가를 만들어 나갔다(열왕기상 16:21~23). 그는 사마리아에 화려한 상아궁을 건설하고 천도하였다(열왕기상 16:24, 22:39). 페니키아, 다마스쿠스 및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고 왕성한 무역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 모압을 정복하고 봉신국으로 삼았다(cf. 열왕기하 3:4). 오므리는 외국에서 볼 때도 '오므리 왕국'으로 표기될 정도로 그 위세를 떨쳤다.

〈모압왕 메사의 비문 중 일부 발췌〉

“나는 그모스 신(Chemosh-gad)의 아들이며,  
모압의 왕 디보나이트(Dibonite)의 아들 메사(Mesha)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을 다스렸고,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모압을 다스렸다.  
나는 그모스신에 바치는 신전을 카르호(Karchah)에 지었다.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었고,  
나의 적을 경멸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왕 오므리(Omri)는 오랫동안 모압을 억압하여  
그모스를 화나게 했다. (...) 오므리와 그의 아들은 메데바(Medeba)를  
40년 동안이나 지배했지만 그모스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왕상 16:25, 개정)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왕상 16:26, 개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는 도로와 맺은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아합과 베니게의 공주 이세벨을 결혼시켰다. 이러한 결혼 동맹은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이 베니게에 대해 취해온 전통적인 정책이었다. 이 동맹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의 악한 풍습과 바알 우상 등이 급속히 유입되어 더욱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초래했다. 이에 더하여 오므리는 그 악명 높은 ‘오므리의 율레’(미 6:16)를 남겼다. 오므리의 율레란 다른 아닌 여호와를 철저히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었다.

(미 6:16, 개정) 너희가 오므리의 율레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 정치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오므리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키고, 우상숭배를 고착화시킨 죄악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열왕기서는 세상적인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는지를 기준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

③ 아합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왕하 3:4),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를 누렸다. 하지만 그는 시돈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왕상 16:28-31)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찾아들게 했다(왕상 16:32-33). 또한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

(왕상 16:30, 개정)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상 16:31, 개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상 16:32, 개정)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왕상 16:33, 개정)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 이세벨 ‘고상한’이라는 뜻  
시돈(페니키아) 왕 엣바알(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B.C. 874-853년)의 아내가 된 자(왕상 16:31). 가증스런 우상 숭배자이며,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받고 있다(왕상 21:5-16; 왕하 9:22).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왕상 16:30-31; 21:25-26),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으며,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하여 조종했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왕상 16:31-33; 18:4, 13, 19).

그에 더하여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으며(왕상 18:4-13), 갈멜 산상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엘리야를 죽일 계락을 꾸몄다(왕상 19:1-2, 10). 그리고 남편 아합의 그릇된 욕심에 동조하여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과수원을 탈취했으며(왕상 21:1-16), 또 자신의 딸 아달라를 다윗 왕가와 결혼시킴으로써 바알 숭배의 악한 영향력이 남왕국 유다에까지 미치도록 했다(왕하 8:25-27; 대하 21:5-7). 그리고 백성을 미혹하는 음행과 술수를 많이 행했다(왕하 9:22).

한편 이세벨의 이 같은 가증스런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처참한 죽음(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 먹는)을 예언했으며(왕상 21:23; 왕하 9:10), 그 결과 아합 왕가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행했던 예후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됨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왕하 9:7, 30-36).

### 3)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 - 엘리야와 엘리사

▶ 아합 왕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면 동시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하나인 엘리야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① 엘리야

▶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는 뜻.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으로(왕상 17:1; 왕하 1:3)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하시야 시대 선지자(B.C. 876-852년경). 그는 몸에 털이 많았고(왕하 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별했으며(왕상 19:10, 14; 눅 1:17; 롬 11:2-3)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요(왕상 19:19-21)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였다(왕상 17-19장). 또한 세례 요한의 예표적 인물이기도 했다(말 4:5; 마 17:10-13; 눅 1:15-17).

그의 예언 활동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들면, ①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과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가뭄의 위기를 넘긴 일과 사르밧 과부 집에서의 일(왕상 17장). ②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왕상 18장). ③ 이세벨의 분노를 피하여 호렙 산으로 피신한 일.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에 대한 약속과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하사엘을 수리아 왕으로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는다(왕상 19:1-21). ④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을 것(왕상 21:17-22). ⑤ 병든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을 때 아하시야의 죽음을 예언한 일(왕하 1:3-16). 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승천한 일(왕하 2:1-15) 등이 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기도 했다(마 17:3-4; 막 9:4-5; 눅 9:30-33).

▶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후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신청한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각각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여 제단에 불을 내려 태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규칙으로 대결을 했다. 엘리야는 승리하였고, 바알선지자들을 죽인다.



(왕상 18:21, 개정)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왕상 18:26, 개정)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왕상 18:28, 개정)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왕상 18:37, 개정)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8, 개정)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 지라

▶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신6:4).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자 친히 나서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증명하신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다신교적인 세계관에 직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유일함을 드러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셨다.



## ②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

1. 아벨므홀라 성에 거하던 사밧의 아들이요(왕상 19:16; 왕하 3:11) 부유한 농부로서(왕상 19:19) 대머리였다(왕하 2:23).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호람에

서부터 예후, 여호아하스를 거쳐 제12대 요아스 왕까지 무려 50여 년 간 영적 지도자로 봉사했다(왕상 19:16, 21). 하나님은 갈멜 산에서의 영적 승리 이후 침체기를 맞고 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울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엘리야는 발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겹옷을 던짐으로써,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이 선지자로 선택되었음을 깨닫게 했다(왕상 19:16-21). 부름 받은 엘리사는 갑절(장자권이나 무리의 지도자의 표시로 받는 '두 배의 몫', 신 21:17)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여 응답을 받게 된다(왕하 2:9-14).

한편, 그가 행한 예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에 승리할 것(왕하 3:16-20), 수넬 여인의 아들이 태어날 것(왕하 4:16-17), 사마리아 성의 풍부한 식량이 예비된 것(왕하 7:1), 왕의 장관의 죽음(왕하 7:2), 기근이 임함(왕하 8:1-3), 벤하닷의 죽음(왕하 8:7-10), 하사엘의 왕위 계승(왕하 8:13-15), 요아스의 승리(왕하 13:14-19) 등이다.

또한 그의 이적들은, 요단 강을 말린 일(왕하 2:13-15), 물을 고친 일(왕하 2:19-22), 꿈의 출현(왕하 2:23-25), 비 없이도 시내에 물이 가득하게 한 일(왕하 3:16-20), 모압인들을 물리친 일(왕하 3:18-20), 적군의 판단을 흐리게 한 일(왕하 3:21-23), 과부의 풍족한 기름(왕하 4:1-7), 불임을 고친 일(왕하 4:12-17), 아이를 되살린 일(왕하 4:32-37), 국의 독기운을 제거함(왕하 4:28-41), 부족한 음식으로 100명을 먹임(왕하 4:42-44), 나아만의 나병 치유(왕하 5:1-27),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일(왕하 6:1-7), 비밀한 말을 들은 일(왕하 6:8-12),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일(왕하 6:13-23; 7:6-8), 식량 값의 폭락(왕하 7:1-2), 7년 간의 기근(왕하 7:6-8) 등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회생하는 기적을 일으켰다(왕하 13:20-21).

#### 4) 예후 왕조(예후 - 여호아하스 - 요아스 - 여로보암 2세 - 스가랴) 교재 p.145

(왕상 19:16, 개정)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상 19:17, 개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세벨에게 쫓기며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예후 왕조를 예비하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후 그의 제자인 엘리사(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가 감당하게 된다.

(왕하 9:6, 개정)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왕하 9:7, 개정)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왕하 10:30, 개정)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척결했으나 벤엘과 단의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다. 그의 개혁은 불완전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다.

(왕하 10:28, 개정)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왕하 10:29, 개정) 이스라엘에게 범되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 5) 말기의 왕들과 호세아(왕하15-16장) 교재 p.145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왕들의 재위기간은 짧았고, 반역에 의한 내전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한 징계를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키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앗수르를 통한 심판을 준비하신다. 북이스라엘 멸망(B.C. 722)

### 3. 남왕국 유다 교재 p.146

1) 파멸의 씨앗 - 정략결혼(왕하8:16-24장, 대하21-24장)

여호람의 정략결혼은 바알 숭배의 길을 열었다(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라). 결국 아달라는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의 손자들인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신을 퍼뜨렸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왕하 8:16, 개정)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왕하 8:18, 개정)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왕하 11:1, 개정)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하 11:2, 개정)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2) 파멸의 재촉 - 하나님을 버림(왕하16장, 대하28장) **교재 p.146**

아하스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영적, 윤리적 퇴폐, 가나안 족속과의 가증한 행위, 어린이 제사 등을 일삼았다.

아하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려 하자 아하스는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앗수르 왕에게 바친다. 또한 다메섹에서 앗수르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도입한다.

(왕하 16:3, 개정)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왕하 16:4, 개정)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왕하 16:5, 개정)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왕하 16:7, 개정)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왕하 16:8, 개정) 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사 7:4, 개정)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개혁

(왕하 18:3, 개정)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하 18:4, 개정)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왕하 18:5, 개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왕하 18:6, 개정)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3) 파멸의 보증 - 가장 악하고 반역적인 왕 므낫세(왕하21:1-18) 55년 통치 **교재 p.146**

(왕하 21:2, 개정)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왕하 21:3, 개정)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왕하 21:5, 개정) 또 여호와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왕하 21:11, 개정)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왕하 21:12, 개정)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왕하 21:13, 개정) 내가 사마리아를 쟈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엽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 4) 유다 말기의 종교개혁 - 요시야와 예레미야(왕하22:1-23:30) 교재 p.146

##### ① 요시야의 1차 종교개혁 - 율법책의 발견과 낭독

통치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하여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는 율법책의 말씀을 읽을 때 유다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옷을 찢어 회개하였다. 또한 모든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신 31:24, 개정)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 31:25, 개정) 모세가 여호와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 31:26, 개정)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 ② 요시야의 2차 종교개혁 - 우상 파괴

성전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솔로몬시대부터 있었던 산당을 없애고 여로보암이 벳엘에 세운 제단도 헐어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죽이고, 유월절을 지켰다.

##### ③ 요시야의 죽음

앗수르왕과 싸우러 올라오는 애굽왕을 저지하려다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한다.

#### 5) 남유다 멸망

열왕기하 25:8-9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